

노인 일자리·환경 등 '1석 3조'... 특별한 구내식당

광주 북구 구내식당 환경·노인복지 선순환 시스템 눈길

시니어클럽서 운영... '대장급 어르신' 16명 즐거운 일터 반찬도 저렴하게 판매 '호응'... 음식물 쓰레기 절반 '뚝'

"오늘은 탕수만두가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광주시 북구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13일 점심 시간 구내식당에서 탕수만두를 '찜'했다. 북구가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 후 남은 반찬을 직원과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수익금은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급여에 보탠다. 어르신들은 북구 시니어클럽 대장급 사업단 멤버다. 북구의 잔반 판매는 환경 오염원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폐기 처리 비용 절감, 노인복지까지 실현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 북구 구내식당에는 남은 반찬을 사기 위한 직원과 지역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구내 식당 매점 냉장고에서 음식을 골랐다. 냉장고에는 이날 구내식당 메뉴인 미역국과 간밤(누룽지), 탕수 만두 등이 통에 담겨 전시돼 있었다. 이날 남은 반찬으로 마련한 국과 반찬은 15개 엽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 동이났다. 북구는 광주 5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내식당 잔반을 직원과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다. 남은 반찬을 판매하기 시작한 코로나 사태가 이어졌던 2022년부터. 구내식당을 찾는 직원들의 발길이 줄어들어가는 잔반이 많아지자 남은 반찬을 팔기 시작했다.

이제 반찬 사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지난 2006년부터 광주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구내식당의 손맛이 좋다고 입소문 나기 때문이다. 또 제육김치볶음 3000원, 멸치 땅콩 볶음 2000원, 오이무침 2000원, 콩나물국 2000원 등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날 미역국과 탕수만두를 구매한 김지현(여·40) 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상담사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차리는 일이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데 가격도 반찬가게보다 3배 가량 저렴하고 맛도 있다"며 "아이들이 구내식당 반찬을 좋아해서 식당 아주머니가 먹여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웃어보였다. 류승혜(여·38) 토지정보과 주무관은 "다른 직원이 추천해줘서 어제 처음 구매하고 만족스러워 오늘도 또 왔다"며 "날이 더워서 국 끓이기 힘들 때 저녁 거리로 사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구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매일 '북구 새울지방 행정시스템(행정 전산망)'에 올리는 구내식당 판매 반찬메뉴와 가격 게시판을 필독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도 크다. 2021년 1만 1520 l였던 음식물쓰레기는 2023년 5760 l로 절반 넘게 줄었다. 판매 수익금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북구 구내식당은 2006년부터 광주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



13일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배식 후 남은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대장급'이 운영 주체다. 16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방식으로 2교대(오전·오후)로 일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월급은 국가보조금으로 월 평균 19만 원에 식권(1인당 5000원)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된다. 반찬 판매로 수익금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월급도 오르게 됐다. 송혜숙 북구 시니어클럽 대장급 사업단장은 "김치 하나까지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 직접 담그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버려지는 걸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남은 음식이 누군가의 버거움을 덜고, 맛있는 저녁으로 재탄생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5·18조사위 보고서 최종안 의결...24일 보고회

44년만에 처음으로 발간되는 국가차원의 5·18민주화운동 종합보고서 보고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13일 제13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5·18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최종 수정안을 의결했다. 최종의결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종합보고서 발간 절차에 돌입했다. 전원위원들은 '종합보고서 최종안 검토' 안건을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는 전제 하에 의결했다. 일부 전원위 의결 사항과 상이하게 기술된 내용을 조정하는 등 소규모 수정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예컨대 군·경의 연행·구금·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관련 내용 중 '신군부에 저항하는 국민을 국기문란 사범으로 지칭하고'라고 기술된 내용을 '국기문란사범 조사계획보고' 원

문에 맞춰 '재야불순세력'으로 고친다거나, 일부 '전원위 일치 진상규명 의결' 문구에 '수정을 전제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이다.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과 관련, '진상조사위 기록물을 5·18기록관에 이관하고 5·18기록관을 국가기록원 광주분원으로 국가 기관화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은 '5·18 관련 기록물은 5·18 연구재단으로 통합 관리돼야 한다'는 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수정이 완료되는대로 보고서 발간을 시작해 오는 24일 서울에서 '종합보고서 발간 보고회'를 연다. 발간된 종합 보고서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진상조사위는 25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26일 해단식을 갖고 4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동 참사 추모식 현수막에 웬 '추가모집'?

그릴 모(慕) 아닌 모을 모(募) 표기 '눈살'...동구 "급하게 제작한 탓" 유족 등에 사과

광주시 동구가 광주 학동 붕괴 참사 3주기 추모식 현수막의 오자(誤字) 때문에 유족에게 머리를 숙였다. 동구는 지난 9일 광주시 동구청 주차장 일대에서 엄수된 학동참사 3주기 추모식 현장에서 분향소를 마련하면서 중앙 현수막에 '추모'의 한자를 '追慕'가 아닌 '追募'로 썼다. 그릴 모(慕)가 아니라 '사람을 모집한다'는 뜻을 가진 모을 모(募)로 잘못 표기해 전혀 의미가 다른 '추가모집'이 돼버렸다. 동구 측은 행사 나흘이 지난 13일까지 현수막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동구 관계자는 "현수막 시안을 만들 때만 해도 그릴 모(慕)자로 제대로 쓰여 있었으나, 오전 중

업체에서 시안을 수정하면서 한자가 뒤바뀌었다"고 해명했다.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는 당초 가로 5m, 세로 2.5m 규모의 분향소 중앙 현수막을 행사대행업체에 제작 요청했으며, 당시 한자는 올바르게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오전 9시께 분향소 텐트를 설치하고 보니 현수막이 너무 크게 만들어졌고, 동구는 급히 규모를 줄여 새로 제작할 것을 업체에 요구했다. 행사대행업체는 "일요일 오전에 일하는 현수막 제작 업체가 별로 없어 급히 다른 업체를 수배해 시안을 JPG 파일로 보냈다"며 "현수막을 제작하려면 사진 파일(JPG)이 아닌 디자인 파일(AI)

이 필요한 터라 현수막 제작 업체가 시안을 보고 급히 AI파일을 따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밝혔다. 행사대행업체가 오전 10시 48분에 현수막 제작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수정 시안에서 최초로 한자 오류가 발생했다. 이후 별다른 검토나 점검 과정 없이 동구는 행사장에 한자가 잘못 표기된 현수막을 사용했다. 동구 관계자는 "행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급하게 새로 현수막을 제작하느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업체 측에서 기존 시안대로 만들었을 것이라 의심치 않았는데, 꼼꼼히 살펴보니 뜻밖의 실수를 했다. 유족들과 추모객,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결재 받으려 도로 안 건너도 된다...북구 신청사 착공

공간부족으로 길 건너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횡단보도를 건너 결재를 받으려 오가야 했던 북구청사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된다. 광주시 북구는 17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청사 신관 건립 사업 착공식'이 열고 신청사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구청사 신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22년 청사 확충 1단계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행정 수요 대비 부족한 청사 사무 공간, 본관과 별관으로 분리된 청사 구조로 비효율적 동선 문제 등이 있어 불편 사항이 많았다.

북구는 지난 3월 옛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로 사용했던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5월에는 세부 실시계획, 공사계약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도 마쳤다. 북구청사 신관은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면적 7165㎡(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 사무실, 회의실, 자료실, 발간실, 구내식당 등으로 채워진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